

광주지역 교수·의사·약사 등 800여명

‘감금 여중생’과 성매매

경찰, 3명 구속·70명 입건

대학교수·의사·약사 등 광주지역 사회 지도층 수십 명이 가출한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가출한 A(14·중2년·중퇴)양을 끄드겨 모텔에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진모(여·20·광주시 북구)씨와 진씨의 남자친구 김모(20)씨 등 3명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양에게 매회 10만~20만원씩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광주 모 대학 K·J 교수 등 70여 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통화 및 인터넷 채팅 내역에서 성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진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A양을 광주시내 4곳의 모텔에 번갈아 감금시키면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유인한 남성 800여 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1억2천여만원을 갚춰한

이들 대부분은 광주지역 남성들이며, 대학 교수 이외에도 의사·약사·공사 직원·회사원·대학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선관위, 7일 결론 내기로

한나라 “주내 고발”…青 “위법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대선주자 비판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참여정부평가포럼)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당과 대선주자들을 짜잡아 비판한 데 대해 “단순

한 선거법 위반처벌을 넘어 ‘야당 후보 죽이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특별히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은 고수, 양측간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노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은 달리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오는 7일 오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해 주목된다.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러나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다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여러 조건 중에 계속적·반복적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은 처음 그 자리에 나간 것”이라며 “큰 문제가 될 게 없고, 선거 중립과는 아주 무관한 걸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라이언 무어(미국·272타)를 1타차로 따돌린 최경주는 시즌 첫 우승과 함께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민주-통합신당 합당 선언 ▶ 3면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중도통합민주당(약칭 통합민주당) 창당 선언식에서 합당선언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 13석, 통합신당 20석과 이날 민주당에 입당한 유선호 의원을 포함, 34석으로 출범한 통합민주당은 오는 15일께 정식 창당된다. /연합뉴스

‘완도탱크’ 최경주 PGA 역전 우승

통산 5번째 우승컵

‘완도탱크’ 최경주(37·나이 키골프)가 세계 톱 랭커들이 총출동한 베이저대회급 특급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관련기사 22면〉 최경주는 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장(파72·7천366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1개로 7언더파 65타를 기록,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정상에 등극했다.

라이언 무어(미국·272타)를 1타차로 따돌린 최경주는 시즌 첫 우승과 함께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6월 항쟁 20년



1980년 5월 ‘광주’ 정신은 7년 뒤인 87년 6월 항쟁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그것은 온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서 30년 가까이 지속된 군사독재 체제를 종식시킨 무렬 시민혁명이었다.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화투쟁의 불씨를 재점화시킨 광주의 ‘7년 투쟁’과 6·10 항쟁 주역들, 넥타이 부대 등 숨은 주역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광주 7년 절규, 시민혁명으로

되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1980년 5·18 직후 무자비한 탄압으로 민주화운동세력을 초토화시켰다. 하지만 광주시민과 피해 당사자, 민주세력들은 좌절과 아픔을 딛고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힘을 모아갔다.

해마다 5월이 오면 시민·학생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망월동 참배를 행하면서 ‘민주·인권·평화’의 항쟁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탄압 뚫고 5월정신 계승

유가족과 노동자, 농민, 교사, 종교, 문화 단체들은 분야별로 대중운동 조직을 꾸려 독재체제의 모순을 온몸으로 폭로했다. ‘이름도 명예도’ 없이 스러져간 그들의 ‘7년 전쟁’은 6·10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광주 미문화원 방화를 결행했다.

투쟁 구심 ‘국본’ 첫 조직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도청 앞 ‘민주화성회’를 주도했던 박관현씨가 1982년 10월 12일 광주교도소에서 50일간의 단식 투쟁 끝에 숨진 시민 대학생들이 다시 일어났다. 셋별야학과 무등야학 등 아학운동도 민주화 의지를 조직화하는데 한 몫 했다.

농민들은 1986년 5월 31일 ‘5·18 광주민중항쟁 유족회’(회장 전계량)를 결성하고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위와 항의방문, 점거농성을 감행했다. ‘구속자가족회’와 ‘5·18 광주민중혁명부상자회’도 운동 회유와 협박, 방해공작에 굽하지 않고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그 해 12월엔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이 자족들이었다.

농민들은 1986년 ‘농가부채해결 전국농민투쟁위원회’(위원장 배종렬)를 꾸려 개방·강제 농정 반대 투쟁으로 독재권력에 정면으로 저항했다. 문화·예술계도 5월을 다룬 작품들을 선보이며 항쟁의 자양분을 제공했다.

〈2면으로 계속〉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회원권 하나로 전국 9곳 골프장 회원대우!

담양다이너스티CC



함평, 장흥, 장성, 동두천, 안성 등 대주그룹 계열 전국 9곳 골프장 회원대우

최고가 아니면
감히 귀하를 모시지 못합니다.

입회금액

VIP회원 : 2억 8천만원 / 플래티늄회원 : 5억 5천만원

담양 다이너스티CC의 회원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VIP회원	월 4회 주말 부キング 보장 평생 그린피 면제 동반 1인 주중, 주말 회원 대우 회원가족 1인 주중 회원 대우 동반자 전월 년 15회 그린피 면제 골프텔 무료이용
-------	---

플래티늄회원	월 8회 주말 부킹 보장 회원 2인 평생 그린피 면제 회원 당 동반 1인 주중, 주말 회원 대우 동반자 전월 년 30회 그린피 면제 무기명카드 1대 할인(주중, 주말 회원대우) 골프텔 무료이용
--------	--

입회안내 062)233-3222